

예방국가

“산업사회의 제도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를 생산하고 정당화한다. 이라는 동시에 산업사회는 스스로를 위험사회로 의식하고 비판한다.”

성찰적 현대화 → 자기대면

위험사회의 발생은 산업사회의 본질, 예를 들면 합의된 발전 담론과 산업화의 생태적 결과와 이로 인한 위험을 추상화(개념화)하는 것이 인간 제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

위험사회: 정치적으로 대결에서 선택이나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무시해온 현대화의 자기과정의 결과물

리스크는 결정에 근거: 결정 가능성을 전제로 함

불확실성 → 결정성 (산업사회는 계산이 힘든 위협을 계산 가능한 리스크로 변환)

리스크의 발생 → 결정의 강요 → 리스크의 재생산 → 보장 시스템의 탄생

→ 사회는 위험 공동체: 예방국가, 부양국가

예측 불가능 → 예측 가능

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→ 예방 행동을 취해야 하는 대상: 인지적/제도적 도구들은 리스크 계산과 보험 계산의 변증법 제공

생산된 리스크가 예방국가에서 현재 유효한 위험 계산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무효화하는 바로 그 순간 위험사회로 진입

이행과정의 기술적 기준은 사적 보험의 부재

사적 보장의 경계의 역할을 함

기술적 합리성 (발전) 리스크 제로로 계산 <→→→> 경제적 합리성 리스크 최고로 계산

예) 자동차(사적보험 가능)

기술집약적 실험 기계 (사적보험 불가능)

보험 전문가

안전 기술자

<←←←역설적인 자기비판의 사회→→→>

위험사회는 역설적으로 자기비판 사회의 경향을 보인다. 보험 전문가와 안전 기술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. 후자는 위험을 0으로 진단하고, 전자는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.

1. 직선적 기술 관료제의 종말?

정치적 이슈: 과학기술적 전보 결정 -- 사태 적합성

위험사회의 인식 시점 = 직선적 관료제 모델의 부정에 대한 인식?

헬무트 쉘스키: 현대 국가는 권력 유지를 위해 기술과학을 내면화 → 민주적 의사결정과 규범/정치적 인 목표가 아닌 기술적 사태가 시키는 일을 집행하는 기술국가가 됨

요스트 할프만의 비판: 위험 제로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회 발전--> 모든 것을 리스크로 계산하는 내재적 폭발력 무시

서로 다른 리스크 평가는 타협점 찾기 힘들
리스크에 대한 결정은 --> 권력 투쟁

리스크 회피가 아닌 리스크 분배

희소성 자원 게임: 과학화된 논증으로 공론의 영역에서 분배 투쟁

과거 분배 갈등: 분화된 수단 (화폐, 투표, 생산 수단 소유)
리스크 분배 갈등: 상징 수단 부재 (확률 계산과 같은 리스크 척도 확립과 계량화 실패)

리스크 ---- 위험
결정자 결정피해자

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은 추락할 수 없다.

2. 직선적 진보비관주의 진부함

보편적인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말라.

리스크 극복의 비지니스